



아이슬란드 Iceland

아이슬란드의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과 젠더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효과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아이슬란드에서 시행되었던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trials of a shorter working week)의 중장기적 효과가 2024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Haraldsson et al., 2024). 해당 보고서는 특히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에 따른 사업장 간의 효과 차이에 주목하며,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각 사업장별 추가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해당 정책실험들이 아이슬란드의 어떠한 정책적·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중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슬란드의 정책적·사회적 조건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카비크(Reykjavik)시와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trials of a shorter working week)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사업장 내 업무협상 방식에 있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 40시간 근무에서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European Public Service Union, 2024). 노동시간 단축은 자칫 의도치 않게 과로 유발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 전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Haraldsson & Kellam, 2021). 구체적으로 논의된 업무조정 내용에는 미팅시간 단축, 불필요한 업무 조정, 일의 순서 변경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를 고려하여 정책실험에 참여할 사업장을 선정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Haraldsson et al. (2024)의 보고서는 돌봄제공자(51%), 교육 분야 종사자(50%), 보건 분야 종사자(44%)의 소진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며, 해당 직종에서 여성(43%)이 남성(29%)보다 많이 종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레이카비크(Reykjavik) 시의회는 실험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서비스센터(Arbaer와 Grafarholt)와 아동보호서비스기관(Reykjavik Child Protection Service)에 근무하는 66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학교, 유지보수기관(city maintenance facilities), 돌봄기관(care-homes) 등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장하였다.


참고자료


- Haraldsson, G. D., & Kellam, J. (2021). Going Public: Iceland's journey to a shorter working week.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Sustainability (Alda) and Autonomy.
- European Public Service Union (2024). Reducing Working Time Case Studies: A Series of Case Studies From Across Europe #02: Iceland.
- Haraldsson, G. D., Kellam, J., & Trickett, R. (2024). On firmer ground: Iceland's ongoing experience of shorter working weeks. The Autonomy Institute and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Sustainability (Alda).
- Iceland Government Offices (2024). Job Evaluatio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ay Equity and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 Maria Hjalmtysdottir (2024. 11. 21.), "Iceland's shorter working week has been a huge success – and it's changed my family's life",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4/nov/21/iceland-36-hour-working-week-stress-job> (접속일: 2025.06.16.).


 추가로 아이슬란드 정부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를 위해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돌봄 및 서비스분야 직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여성 일자리 가치 재평가와 관련한 권고안을 내놓았으며(정이에슬, 2024), 해당 현상의 원인 및 완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Iceland Government Offices, 2024: 26-27).


• 정이에슬 (2024.09.17.),
“성별 격차와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계획의 문제’”,
<https://www.ildaro.com/10002>
(접속일: 2025.06.19.).


◎ 정책 실험 효과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은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보상처럼 주어지는 금요일의 짧은 노동시간(shorter Fridays)이 오히려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Haraldsson & Kellam, 2021: 39).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은 가족 내 돌봄과 유급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제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시간 시간제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같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보장되어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Maria Hjalmtyssdottir, 2024). 실제로 후속설문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시간제 노동을 덜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Haraldsson & Kellam, 2021: 42).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장보기, 청소하기와 같은 가사노동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대신 평일에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가족 및 파트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Haraldsson & Kellam, 2021: 43). 남성 참여자들은 특히 청소, 요리와 같은 가사노동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 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araldsson & Kellam, 2021: 44), 이는 가정 내에서 남성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 참여자 중 젊은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긴 시간을 자녀와 더 많이 쓰는 반면, 중년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시간사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한부모 가정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당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실험 참가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정책 실험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사이에 현재 노동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는 아이슬란드 시민 약 10,000명을 표본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이 가지는 중장기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Haraldsson et al., 2024). 설문 응답자 중 59%는 해당 실험 이후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받았거나 실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여,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가는 효과를 지남을 보여주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에 따른 사업장 간의 효과 차이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주 5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많은 호텔 및 숙박업, 교통업, 기계·가공업, 어업 및 농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Haraldsson et al., 2024: 41). 이는 가족 및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해당 사업장에 남성 종사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별 추가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건·사회 및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업무 강도가 높아 타 직종에 비해 개인적·사회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노동시간 단축정책 실험 이후 새로운 계약을 맺고 업무시간이 줄어든 경우가 많아 유의미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도 나타났으나, 이는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돌봄 관련 업무 자체에서 오는 높은 강도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독일 Germany

폭력 피해 지원법 제정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지난 2월, 독일에서는 폭력 피해 지원법(Gewalthilfegesetz)이 16개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Bundesrat)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본 법은 2032년부터 독일 전역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리사 파우스(Lisa Paus) 연방가족부 장관은 연방상원이 폭력 피해 지원법을 승인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파우스 장관은 이번 법은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여성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독일 내 모든 피해 여성은 무료 보호와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며, 연방정부가 향후 재정 지원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 새롭게 제정된 폭력 피해 지원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무료로 접근 장벽이 낮은 보호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법은 2032년부터 모든 피해자가 개인적 권리로서 관련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추진방안으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등 폭력 예방 조치 강화, 지원체계 내 유기적인 연계 및 일반 복지서비스와의 협력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각 주(州) 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총 26억 유로(한화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피해자 당사자가 속한 지역이나 주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 시설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기관의 통일성을 위해 보다 개선된 지침 및 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 현재 독일에는 약 400개의 여성 보호시설 및 쉼터가 운영 중이고, 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곳은 총 7,70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꾸준히 매년 증가해 온 폭력 피해 여성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독일의 한비영리단체가 발표한 2023년 독일 전국 여성쉼터 통계(Bundesweite Frauenhaus-Statistik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약 1만 4,200명의 여성과 1만 6,000명의 아동·청소년이 입소했지만, 2022년에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약 1만 6,300명의 여성이 입소를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참고자료


- Bundeskriminalamt (2024.11.19) “Bundeslagebilder – Geschlechtsspezifisch gegen Frauen gerichtete Straftaten 2023”, <https://www.bka.de/SharedDocs/Downloads/DE/Publikationen/JahresberichteUndLagebilder/StraftatenGegenFrauen/StraftatengegenFrauenBLB2023.html?nn=237578> (접속일: 2025.6.18.)
- Euractiv (2025.2.14) “Germany passes ‘historic’ law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germany-passes-historic-law-against-domestic-violence/> (접속일: 2025.6.18.)
- Deutschlandfunk (2025.2.15) “Mehr Schutz, aber nur für Frauen”, <https://www.deutschlandfunk.de/gewalthilfegesetz-100.html> (접속일: 2025.6.18.)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5.2.14), “Bessere Unterstützung für Gewaltopfer”,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gesetzesvorhaben/gewalthilfegesetz-2321756> (접속일: 2025.6.18.)


1) 2024년에 발행한 해당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독일 전역의 약 400여 개 여성쉼터 중 176곳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밖에도 현재 독일에서는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긴급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성폭력 긴급전화(번호 116 016)’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화 상담뿐 아니라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지원한다. 상담은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철저히 보장되며,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18개 외국어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해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상담사는 피해자와 가까운 지역의 지원 기관을 연계해 주기도 한다. 게다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이나 전문가들도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Frauenhauskoordinierung (2024.10.7) "Bundesweite Frauenhaus-Statistik 2023", https://www.frauenhauskoordinierung.de/fileadmin/redakteure/Publikationen/Statistik/2024-10-07_FHK_Kurzfassung_final.pdf (접속일: 2025.6.18.)

 폭력 피해 지원법의 전면적인 시행은 7년 뒤인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는 각 주가 새로 시행될 법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충분히 강화하고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2032년까지의 공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일 내 한 비정부기관(NGO)은 본 법이 통과되었다고 안심하거나 기다릴 수 없고, 법적 권리가 발효되기 전까지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혐오에 의한 여성살해(femicide) 증가를 우려하면서 2032년까지 법이 시행되지 않아 기다리기에 너무 늦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는 938명의 여성과 소녀가 살인 또는 살인 미수의 피해자였고, 이 중 360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여성 살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일각에서는 2032년보다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법이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최근 통과된 폭력 피해 지원법은 성폭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Deutschlandfunk)은 남성 피해자는 이번 법에서 개념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과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도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독일 폭력 피해 지원법이 지닌 한계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 Ireland


◦ 환경기 여성 대상 무료 호르몬 대체 요법 제공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아일랜드 정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환경 증상을 겪는 모든 아일랜드 거주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을 무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니퍼 캐럴 맥닐(Jennifer Carroll MacNeill)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위해 2025년 예산에서 연간 2,000만 유로(약 315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여성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몬 대체 요법의 필요성과 효과)** 환경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며, 그로 인해 홍조, 기분 변화, 불면증, 질 건조증,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성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 요법은 이러한 호르몬 부족을 보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정제, 피부 패치, 에스트로겐 젤, 스프레이, 질 에스트로겐 등 다양한 형태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제공하며, 여성들은 이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의, 등록 간호사, 조산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표)** 이번 제도는 아일랜드 정부의 '여성 건강 행동 계획 2024-2025 2단계: 여성 건강의 진화(Women's Health Action Plan 2024-2025 Phase 2: An Evolution in Women's Health)'의 연장선에서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여성들이 건강 관리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환경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사회 전반에서 여성 건강에 대한 열린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인 환경 인식 제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에 따르면 72%의 응답자가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약국 참여 및 비용 지원)**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약사 연합(Irish Pharmacy Union)과 협의하여, 조제 수수료를 1건당 5유로(약 7,884원)로 결정했다. 이 수수료는 HRT 제품과 조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또한, 정부는 약국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약국에 1,000유로(약 157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제도 전환을 돕는다. 이를 통해 약국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gov.ie (2025.6.3.), "Free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 Measure", <https://www.gov.ie/en/department-of-health/campaigns/free-hormone-replacement-therapy-hrt-measure/> (접속일: 2025.6.20.)
- gov.ie (2024.5.9.), "Women's Health Action Plan 2024-2025 Phase 2: An Evolution in Women's Health", <https://www.gov.ie/en/department-of-health/publications/womens-health-action-plan-2024-2025-phase-2-an-evolution-in-womens-health/> (접속일: 2025.6.20.)
- Citizens Information (2025.6.6.), "Free HRT for menopause",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health/health-services/reproductive_health/free-hormone-replacement-therapy-hrt-scheme/#:~:text=Since%201%20June%202025%2C%20your,holders%20or%20a%20dispensing%20fee. (접속일: 2025.6.20.)
- Echo LIVE.ie (2025.6.2.),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HRT scheme", <https://www.echolive.ie/wow/arid-41641801.html> (접속일: 2025.6.20.)
- Irish Examiner (2025.6.3.), "Free HRT now available in over 1,600 pharmacies, says HSE", <https://www.irishexaminer.com/news/arid-41644273.html> (접속일: 2025.6.20.)



이번 호르몬 대체 요법 무료 제공 제도는 단순히 여성 건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여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많은 여성이 완경 증상을 완화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을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